

##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 : 7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Romans 1:7 (NKJV)

<sup>7</sup>To all who are in Rome, beloved of God, called *to be* saints: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잘못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첫단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기가 믿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I. 그러면 먼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무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과과의 일치를 통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삼위안에서 당신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 II.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오는 은혜의 삼요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그리스도로 부터 오는 은혜를 말할 때 분리해서 말할 수 없는 세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영생의 약속이다,  
두번째는 선택으로 받는다,  
세번째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 세가지가 은혜의 삼요소입니다.

### 1. 영생의 약속

하나님께서서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과와의 일치를 통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것을 삼위일체 안에서 가지시고, 영생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주시고, 선택된 모든 자들을 모두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영생의 약속을 말합니다.

디도서 1 : 2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2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that cannot lie, promised before the world began;**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영생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 :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생명을 외아들이신 예수님께만 주었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1 : 2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예수님은 영원저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 :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 2. 창세전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변함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은 선택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피택자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 포함되지 않아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9 :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 :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행전 13 :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두 구절은 복음을 듣고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음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서는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영생을 받을 선택된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하길,

요한복음 17 :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이 구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는 창세전에 영생부여를 위해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을 모두 창세전에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 :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말’은 지금 예정을 하고 지금 영생을 주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에 의해 영생을 주시기한 예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 3.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에 대해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은 오직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 : 9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신인이었던 존재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인이라는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의해 계시적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길,

에베소서 2 :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 :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믿음은 계시적 믿음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의 믿음이 됩니다. 인간이 믿기로 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 안에서의 믿음에 대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1 믿음은 은혜 안에서의 믿음이지만, 믿음은 조건으로서 요구된다.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서 성취되지만 아울러 인간 편에서의 믿음이 은혜 안에서 요구됩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롬 1:17).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의 은혜가 내려 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은 은혜를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은혜안에 있는 믿음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 일반 은혜로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은혜안의 믿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더욱 강해집니다.

### 3.2 은혜가 믿음에 선행한다.

성경은 자연인은 영이 죽어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인을 죽은자라고 하십니다. 영이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영적 말씀을 들려 주어도 반응을 못합니다. 소귀에 경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영을 살려 주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가 역사하여 죽은 영이 살림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영적 음성이 들리게 되고, 믿어야겠다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가 믿음에 앞선다는 말입니다.

칼빈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말할 때, 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쩔 수없이 믿게 하는 강제적인 의미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 의지로 거부할 수 있으나 인간의 거부가 하나님의 예정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자의지적으로 굴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아담은 허용적 작정으로 선악과를 택하는 불순종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 있었으나, 아담의 불순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했지만 그는 구원에 참여했습니다(창 3:21).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의지 아래 인간의 자유 의지가 순종을 한 결과입니다.

### 3.3 은혜 안에서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로마서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한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